만고에 우뚝한 한라의 영산 / 어리인 정기로 빚어낸 인걸 / 세기는 부른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진리의 탐구자 / 오, 우리는 문명의 선구자 //
한라산 허리에 바람이 일며 / 태평양 기슭에 물결이 칠 때 / 가슴이 뛰는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문화의 창조자 / 오, 우리는 역사의 건설자 //
진실 봉공 협동과 진취 / 우리의 갈 길은 여기에 있다 / 헤치고 나가자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민중의 지휘자 / 오, 우리는 조국의 계승자

제주대신문

진리 정의 창조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 2013년 5월 1일 수요일 제891호

취업도 과외시대… '취업 컨설턴트' 호평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 6월부터 상주 진로지도
취업 코디네이터 교수제는 만족도 낮아 곧 폐지될 듯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 컨설턴트' 프로그램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취업 컨설턴트 프로그램은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윤)가 학생들에게 △학과별 맞춤형 취업특강 △입사지원서 클리닉 △취업 및 진로상담 △직무적성검사 △취업추천 및 알선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전략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부터 45일간 운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2600여명의 학생(졸업생 포함)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상담 전문 컨설턴트를 사범대학 등 일부 단과대학으로 파견해 운영했다. 그 결과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보임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각 단과대학에 취업상담실을 설치했고 컨설턴트도 4명(8개 단과대학)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취업전략본부 관계자는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미취업 졸업생들에게 취업전문 컨설턴트가 취업준비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지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민성(언론홍보학과 3)씨는 "개인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상담이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공과대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에 근무하는 박진배 컨설턴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스펙과 역량을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표현하는 능력이 미흡하다"며 "학생들이 자신감과 입사지원을 위한 동기부여에 역점을 두고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적 한계로 인해 학생들이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점이 안타까워 학생들에게 이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취업 컨설턴트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취업전략본부에 따르면 5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각 단과대학별로 1명 이상의 인원을 상주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보인다. 어떤 학생은 취업상담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해당 단과대학 상담실에 있어야할 컨설턴트가 자리를 비워 상담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회과학대학의 한 학생은 "상담을 받고 싶어도 언제 다시 찾아오면 받을 수 있는지 공지가 없어 답답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주위에 무슨 요일에 상담실을 여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 코디네이터 교수제'는 앞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취업 코디네이터 교수제는 단과대학마다 한 명의 교수를 임명해 단과대학의 학생들에게 취업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익권(취업전략본부) 실무관은 "취업 코디네이터 교수제를 운영해본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고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취업 컨설턴트 프로그램 등과 같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취업 컨설턴트 프로그램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사진은 한 학생이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장면.

이덕희 이사에 감사패 전달

<하와이대학 후원재단>

제주대 학생 10명 후원 공로
등록금·기숙사비 등 지원

제주대는 지난달 22일 이덕희 하와이대학 후원재단 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금까지 10명의 제주대학생에게 하와이 교류수학을 보낸 공로다. 이덕희 이사는 2002년부터 '무라바야시 장학'이라는 명목으로 10명의 학생을 선정해 하와이 토카이 대학과 카피올라니 대학으로 교류수학을 보냈다. 학생들은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으로 연 800만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이 학생들은 현재 법무부, 국립암센터, 교수 등 사회 각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덕희 이사는 "서울에 비해 제주도의 학생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없다고 판단해 장학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광개발 업무로 1985년부터 제주를 처음 방문했다"며 "이후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주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제주대 교수들과도 자주 만나고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덕희 이사는 "이런 계기로 2002년부터 장학 사업을 진행했고 10명의 학생들을 지원했다"며 "뿌듯함이 크고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40~50대가 돼서 다시 어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에는 4명의 장학생도 참여했다. 홍콩 뱁티스트대학에 지난해 부임한 오현지 교수도 장학생 중 한 명이다.

오현지(언론홍보학과 졸업) 교수는 "선생님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2004년에 교류수학이 석사, 박사 과정을 밟게 된 원동력이 됐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지난달 22일 허향진 총장으로부터 이덕희 이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무질서 주차로 휠체어 통행이 불편해요"

장애학생들 시설 개선 건의
최현태·이지성 모범학생 표창

장애학생들이 캠퍼스내에 학생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들을 고쳐줄 것을 학교당국에 건의했다.

제33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지난달 26일 학생회관 3층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허향진 총장, 김석종 학생처장, 유병선 총학생회장 등 학생자치기구 임원과 이승주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들을 지적하면서 고쳐줄 것을 요청했다.

한 학생은 "인문대학 등 일부 단과대학 건물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구분 없이 마련돼 있는데 이를 구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회관 등에 일부 차량들이 무질서 주차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학생들이 통행하기 불편하다"며 "이를 단속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향진 총장은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한 후 개선해서 장애학생들이 대학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최현태(사회학과 2), 이지성(초등교육과 2) 학생에게 모범 학생 표창을 전달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카툰전시회, 도우미 학생 장해이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한편 제주대는 지난해 3월 교과부가 실시한 4년제 및 전문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김명지 기자

지난달 26일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허향진 총장, 이승주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 기념 간담회가 열렸다.

기초교육원, 학습전략 워크숍 마련

학습전략 장·단점 분석
신청은 오는 3일까지

기초교육원(원장 현승환)에서 학습전략워크숍을 연다.

오는 7일 오후 6시부터 교양동 4127 강의실에서 '火.공.비(화요일의 공부비법!)2탄, 나의 학습유형에 딱 맞는 학습법 찾기'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학습워크숍은 홍효정(기초교육원) 연구원이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전략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시험 등을 대비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또 학습전략 전문가가 학습자의 학습상태를 진단하여 문제점을 분석해준다. 신청은 오는 3일까지 기초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학습전략 워크숍은 오는 6월 4일까지 △노트필기 및 리포트 작성 △러닝포트폴리오의 모든 것 △A+ 성공적인 시험전략을 주제로 열릴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부(전화 754-2037)로 문의하면 된다.

SK핀크스와 산학교류 협력

제주대가 지난달 23일 SK핀크스㈜(대표이사 조용선)와 제주 관광·레저산업 발전과 양 기관의 협력을 위한 산학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인턴십 및 취업 지원 △관광·레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공동 운영 △현장 견학 및 실습활동 지원 △산학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

SK핀크스는 SK그룹 계열사로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서 핀크스 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브랜섬홀 아시아와 업무협약 체결

교육·학술 상호 협력
학생 교육활동 지원 등

제주대가 지난달 22일 브랭섬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총교장 글렌 라도이코브치)와 교육·학술분야의 상호 협력과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교직원 상호 교류 △교직원 상호 교류 △공동 연구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공동회의와 워크숍 등 기타 학술활동 추진 △우수 글로벌 교원양성 프로그램 상호 협력 △학생 교육활동 공동지원 △도서관 자료, 연구 간행물 등 학술정보 교환 △양교 연구시설 공동 이용등에 협력키로 했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11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캐나다 최고의 명문 여자 사립학교로서 지난해 10월 전세계 유일한 국외 캠퍼스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개교했다. 이 학교는 북미, 아시아, 유럽 지역의 국제 표준 교과 과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교육을 초중고교 전 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2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 · 세출결산 현황

Ⅰ. 세입 · 세출 총괄

■ 세입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고
예산액 (A)	57,908,415,000	• 회비수입 : 16,301,070 원 • 이 월 금 : 711원 • 보 조 금 : -21,300원 • 잡 수 입 : -167,534,760원 • 수입대체경비 : -3,117,869원
전년도사고이월액 (B)	5,539,132,180	
예산현액 (C=A+B)	63,447,547,180	
세입결산액 (D)	63,293,175,032	
세입차액 (E=D-C)	-154,372,148	

■ 세출 (단위: 원)

구 분	금 액	집행잔액 내역
예산액 (F)	57,908,415,000	• 사고이월 : 2,697,529,130원 • 명시이월 : 347,829,000원 • 불 용 액 : 1,047,387,175원 - 일반운영경비 : 908,174,710원 - 보조금사업비 : 24,907,470원 - 수입대체경비 : 114,304,995원
전년도사고이월액 (G)	5,539,132,180	
예산현액 (H=F+G)	63,447,547,180	
세출결산액 (I)	59,354,801,875	
세출집행잔액(J=H-I)	4,092,745,305	

■ 이월현황 (단위: 원)

이월총액 (K) (E+J)	사고이월 (L)	명시이월 (M)	세계잉여금 (N=K-L-M)
3,938,373,157	2,697,529,130 • 일반운영경비 : 114,844,780원 • 보조금사업비 : 2,582,684,350원	347,829,000 • 일반운영경비 : 11,502,000원 • 수입대체경비 : 336,327,000원	893,015,027 • 세입결산차액 : -154,372,148원 • 세출예산 불용액 : 1,047,387,175원 ※ 2013학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예정) : 893,015,027원

Ⅱ. 세입 · 세출 결산

1. 세입 (단위: 원)

예산과목	세입예산액 (A)	전년도 사고이월액(B)	세입예산현액 (C=A+B)	결산액 (D)	증감액 (E=D-C)
회 비	36,573,835,000		36,573,835,000	36,590,136,070	16,301,070
• 재학생 인원 증가에 따른 회비 수입 증가					
이월금	1,827,305,000	3,155,233,120	4,982,538,120	4,982,538,831	711
보조금	10,806,025,000	2,365,899,060	13,171,924,060	13,171,902,760	-21,300
2011년도 대학 구조개혁(통폐합) 지원사업 과오납 (불용액)반납					
잡수입	1,583,906,000		1,583,906,000	1,416,371,240	-167,534,760
• 정기예금 이율 하락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감소 • 산학협력단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금 감소					
소 계	50,791,071,000	5,521,132,180	56,312,203,180	56,160,948,901	-151,254,279
수입대체경비	7,117,344,000	18,000,000	7,135,344,000	7,132,226,131	-3,117,869
• 외국어교육원 등 세입액 감소					
합 계	57,908,415,000	5,539,132,180	63,447,547,180	63,293,175,032	-154,372,148

2. 세출 (예산과목별 총괄)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A)	전용 등 증감액(B)	예산액 (C=A+B)	전년도 사고이월액(D)	예산현액 (E=C+D)	지출액 (F)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I=E-F-G-H)	집행율 [(F+G)/E,%]
							사고이월(G)	명시이월(H)		
합 계	47,709,033,000	10,199,382,000	57,908,415,000	5,539,132,180	63,447,547,180	59,354,801,875	2,697,529,130	347,829,000	1,047,387,175	98%
일 반 운 영 경 비	39,218,707,000	766,339,000	39,985,046,000	3,140,233,120	43,125,279,120	42,090,757,630	114,844,780	11,502,000	908,174,710	98%
【인건비】	16,617,630,000	-254,927,830	16,362,702,170	0	16,362,702,170	16,230,296,430	0	0	132,405,740	99%
봉 급	3,843,655,000	-240,037,540	3,603,617,460	0	3,603,617,460	3,506,568,710	0	0	97,048,750	97%
상 여 금	274,029,000	-17,169,890	256,859,110	0	256,859,110	256,859,110	0	0	0	100%
정 액 수 당	191,680,000	-32,576,190	159,103,810	0	159,103,810	159,103,810	0	0	0	100%
초과근무수당	165,293,000	-39,434,390	125,858,610	0	125,858,610	115,601,270	0	0	10,257,340	92%
명예퇴직수당	0	70,695,180	70,695,180	0	70,695,180	70,695,180	0	0	0	100%
수 당	1,374,274,000	52,365,000	1,426,639,000	0	1,426,639,000	1,403,762,310	0	0	22,876,690	98%
일 용 잡 급	151,147,000	3,420,000	154,567,000	0	154,567,000	153,390,360	0	0	1,176,640	99%
정 액 연 구 비	3,419,848,000	5,000,000	3,424,848,000	0	3,424,848,000	3,424,043,840	0	0	804,160	100%
행 정 관 리 비	750,898,000	-21,677,000	729,221,000	0	729,221,000	729,220,550	0	0	450	100%
연 구 자 료 비	2,663,722,000	5,000,000	2,668,722,000	0	2,668,722,000	2,668,480,770	0	0	241,230	100%
직 무 개 발 비	818,734,000	-21,044,000	797,690,000	0	797,690,000	797,689,520	0	0	480	100%
교재개발연구비	2,083,269,000	-3,813,000	2,079,456,000	0	2,079,456,000	2,079,456,000	0	0	0	100%
교육지원활동비	881,081,000	-15,656,000	865,425,000	0	865,425,000	865,425,000	0	0	0	100%
【운영비】	13,809,629,000	303,290,910	14,112,919,910	170,705,200	14,283,625,110	13,620,747,430	25,460,000	11,502,000	625,915,680	96%
일 반 수 용 비	2,642,664,000	-508,198,880	2,134,465,120	118,935,000	2,253,400,120	2,176,542,240	9,960,000	0	66,897,880	97%
공공요금및제세	1,003,103,000	-381,396,450	621,706,550	0	621,706,550	589,146,330	0	0	32,560,220	95%
피 복 비	9,740,000	-80,000	9,660,000	0	9,660,000	9,641,870	0	0	18,130	100%
특 근 매 식 비	48,415,000	-15,802,000	32,613,000	0	32,613,000	30,800,000	0	0	1,813,000	94%
운 영 수 당	234,112,000	-28,843,000	205,269,000	0	205,269,000	171,805,000	0	0	33,464,000	84%
임 차 료	758,820,000	-139,242,000	619,578,000	0	619,578,000	607,671,200	0	0	11,906,800	98%
연 료 비	335,400,000	-1,624,000	333,776,000	0	333,776,000	318,997,330	0	0	14,778,670	96%
시설장비유지비	3,187,119,000	-42,555,210	3,144,563,790	4,270,200	3,148,833,990	3,129,597,600	9,500,000	0	9,736,390	100%
차 량 선 박 비	42,720,000	-790,000	41,930,000	0	41,930,000	41,923,970	0	0	6,030	100%
재 료 비	517,610,000	-12,283,600	505,326,400	0	505,326,400	504,776,550	0	0	549,850	100%
학생활동지원	0	741,542,080	741,542,080	0	741,542,080	739,325,610	0	0	2,216,470	100%
학교행사지원	0	38,200,000	38,200,000	0	38,200,000	37,835,890	0	0	364,110	99%
적 립 금	0	11,502,000	11,502,000	0	11,502,000	0	0	11,502,000	0	0%
국 내 여 비	916,133,000	-84,304,140	831,828,860	0	831,828,860	750,008,520	0	0	81,820,340	90%
국 외 여 비	182,140,000	-11,899,000	170,241,000	0	170,241,000	163,221,310	0	0	7,019,690	96%
업 무 추 진 비	1,089,428,000	-98,061,500	991,366,500	0	991,366,500	921,955,030	0	0	69,411,470	93%
복 리 후 생 비	576,923,000	-59,715,390	517,207,610	0	517,207,610	512,697,060	0	0	4,510,550	99%
연 구 개 발 비	2,265,302,000	896,842,000	3,162,144,000	47,500,000	3,209,644,000	2,914,801,920	6,000,000	0	288,842,080	91%
【경상이전비】	5,898,645,000	294,946,380	6,193,591,380	0	6,193,591,380	6,127,710,740	0	0	65,880,640	99%
보 상 금	5,134,748,000	-78,745,210	5,056,002,790	0	5,056,002,790	5,043,266,410	0	0	12,736,380	100%
퇴 직 충 당 금	563,897,000	393,191,590	957,088,590	0	957,088,590	953,966,550	0	0	3,122,040	100%
배 상 금	200,000,000	-19,500,000	180,500,000	0	180,500,000	130,477,780	0	0	50,022,220	72%
【자본적지출경비】	2,792,801,000	515,036,540	3,307,837,540	2,969,527,920	6,277,365,460	6,112,003,030	89,384,780	0	75,977,650	99%
시 설 비	1,329,000,000	249,306,000	1,578,306,000	2,958,248,920	4,536,554,920	4,522,533,920	0	0	14,021,000	100%
시 설 부 대 비	103,000,000	261,400,000	364,400,000	11,279,000	375,679,000	230,956,350	89,384,780	0	55,337,870	85%
자 산 취 득 비	1,360,801,000	4,330,540	1,365,131,540	0	1,365,131,540	1,358,512,760	0	0	6,618,780	100%
과 년 도 지 출	1,000	0	1,000	0	1,000	0	0	0	1,000	0%
잡 지 출	1,000	0	1,000	0	1,000	0	0	0	1,000	0%
예 비 비	100,000,000	-92,007,000	7,993,000	0	7,993,000	0	0	0	7,993,000	0%
수 입 대 체 경 비	6,120,326,000	997,018,000	7,117,344,000	18,000,000	7,135,344,000	6,684,712,005	0	336,327,000	114,304,995	94%
【인건비】	2,050,135,000	32,761,000	2,082,896,000	0	2,082,896,000	2,079,945,800	0	0	2,950,200	100%
봉 급	705,279,000	-17,142,000	688,137,000	0	688,137,000	687,426,330	0	0	710,670	100%
상 여 금	10,100,000	-500,000	9,600,000	0	9,600,000	9,597,950	0	0	2,050	100%
정 액 수 당	26,420,000	-4,32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0	0		100%
초과근무수당	67,142,000	-6,070,000	61,072,000	0	61,072,000	60,523,340	0	0	548,660	99%
수 당	1,100,134,000	63,061,000	1,163,195,000	0	1,163,195,000	1,161,606,180	0	0	1,588,820	100%
일 용 잡 급	21,760,000	-490,000	21,270,000	0	21,270,000	21,270,000	0	0	0	100%
연 구 자 료 비	105,500,000	-2,828,000	102,672,000	0	102,672,000	102,672,000	0	0	0	100%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A)	전용 등 증감액(B)	예산액 (C=A+B)	전년도 사고이월액(D)	예산현액 (E=C+D)	지출액 (F)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I=E-F-G-H)	집행율 [(F+G)/E,%]
							사고이월(G)	명시이월(H)		
교재개발연구비	13,800,000	1,050,000	14,850,000	0	14,850,000	14,750,000	0	0	100,000	99%
【운영비】	3,627,221,000	850,029,000	4,477,250,000	18,000,000	4,495,250,000	4,118,512,775	0	273,113,960	103,623,265	92%
일 반 수 용 비	692,968,000	97,422,620	790,390,620	0	790,390,620	788,346,870	0		2,043,750	100%
공공요금및제세	691,656,000	56,227,000	747,883,000	0	747,883,000	661,136,270	0	0	86,746,730	88%
피 복 비	14,520,000	-2,406,000	12,114,000		12,114,000	12,114,000				100%
특 근 매 식 비	9,600,000	-2,135,000	7,465,000	0	7,465,000	6,339,000	0	0	1,126,000	85%
운 영 수 당	39,910,000	870,000	40,780,000	0	40,780,000	40,328,000	0	0	452,000	99%
임 차 료	51,680,000	2,020,000	53,700,000	0	53,700,000	53,390,000	0	0	310,000	99%
연 료 비	240,620,000	54,852,000	295,472,000	0	295,472,000	295,447,760	0	0	24,240	100%
시설장비유지비	225,100,000	72,412,000	297,512,000	0	297,512,000	274,899,880	0	21,000,000	1,612,120	92%
재 료 비	1,006,544,000	331,302,000	1,337,846,000	0	1,337,846,000	1,337,680,865	0	0	165,135	100%
적 립 금	0	212,107,000	212,107,000		212,107,000	0	0	212,107,000		0%
국 내 여 비	102,820,000	4,300,080	107,120,080	0	107,120,080	105,205,340	0	6,960	1,907,780	98%
국 외 여 비	59,500,000	21,359,000	80,859,000	0	80,859,000	80,676,800	0	0	182,200	100%
업 무 추 진 비	345,459,000	-20,884,700	324,574,300	0	324,574,300	316,265,880	0	0	8,308,420	97%
복 리 후 생 비	91,844,000	-2,357,000	89,487,000	0	89,487,000	88,742,110	0	0	744,890	99%
연 구 개 발 비	55,000,000	24,940,000	79,940,000	18,000,000	97,940,000	57,940,000	0	40,000,000	0	59%
【경상이전비】	278,939,000	43,500,000	322,439,000	0	322,439,000	318,755,390	0	0	3,683,610	99%
보 상 금	107,696,000	28,171,000	135,867,000	0	135,867,000	134,455,000	0		1,412,000	99%
퇴 직 충 당 금	76,243,000	-3,967,000	72,276,000	0	72,276,000	70,164,940	0	0	2,111,060	97%
배상금	95,000,000	19,296,000	114,296,000	0	114,296,000	114,135,450	0	0	160,550	100%
【자본적지출경비】	162,688,000	70,728,000	233,416,000	0	233,416,000	167,498,040	0	63,213,040	2,704,920	72%
시 설 비	0	40,000,000	40,000,000	0	40,000,000	0	0	40,000,000	0	0%
자 산 취 득 비	162,688,000	30,728,000	193,416,000	0	193,416,000	167,498,040	0	23,213,040	2,704,920	87%
예 비 비	1,343,000	0	1,343,000	0	1,343,000	0	0	0	1,343,000	0%
보 조 금 사 업 비	2,370,000,000	8,436,025,000	10,806,025,000	2,380,899,060	13,186,924,060	10,579,332,240	2,582,684,350	0	24,907,470	100%
【인건비】	105,300,000	2,132,264,820	2,237,564,820	0	2,237,564,820	2,235,636,170	0	0	1,928,650	100%
봉 급	84,000,000	171,369,820	255,369,820	0	255,369,820	255,361,890	0	0	7,930	100%
상 여 금	0	1,855,109,000	1,855,109,000	0	1,855,109,000	1,855,109,000	0	0	0	100%
초과근무수당	0	14,682,000	14,682,000	0	14,682,000	14,682,000	0	0	0	100%
수 당	21,300,000	69,076,000	90,376,000	0	90,376,000	88,455,280	0	0	1,920,720	98%
일 용 잡 급	0	22,028,000	22,028,000	0	22,028,000	22,028,000	0	0	0	100%
【운영비】	308,900,000	2,758,119,570	3,067,019,570	15,000,000	3,082,019,570	3,068,973,380	6,000,000	0	7,046,190	100%
일 반 수 용 비	36,890,000	58,650,000	95,540,000	0	95,540,000	89,500,630	6,000,000	0	39,370	100%
공공요금및제세	13,000,000	34,094,000	47,094,000	0	47,094,000	47,094,000			0	100%
피 복 비	0	256,000	256,000	0	256,000	256,000	0	0	0	100%
특 근 매 식 비	0	480,000	480,000	0	480,000	480,000			0	100%
운 영 수 당	9,100,000	32,970,000	42,070,000	0	42,070,000	41,670,000	0	0	400,000	99%
임 차 료	31,500,000	-8,000,000	23,500,000	0	23,500,000	23,475,200			24,800	100%
시설장비유지비	0	25,695,000	25,695,000	0	25,695,000	25,636,640			58,360	100%
차 량 선 박 비	0	6,101,000	6,101,000	0	6,101,000	6,101,000	0	0	0	100%
재 료 비	0	28,243,000	28,243,000	0	28,243,000	28,243,000			0	100%
학생활동지원	0	2,244,640,250	2,244,640,250	0	2,244,640,250	2,244,640,250	0	0	0	100%
학교행사지원	0	52,000,000	52,000,000	0	52,000,000	52,000,000			0	100%
국 내 여 비	42,990,000	13,403,000	56,393,000	0	56,393,000	53,236,290	0	0	3,156,710	94%
국 외 여 비	116,500,000	-2,071,000	114,429,000	0	114,429,000	111,394,530			3,034,470	97%
업 무 추 진 비	28,920,000	22,310,000	51,230,000	0	51,230,000	50,897,520	0	0	332,480	99%
복 리 후 생 비	0	17,285,000	17,285,000	0	17,285,000	17,285,000			0	100%
연 구 개 발 비	30,000,000	232,063,320	262,063,320	15,000,000	277,063,320	277,063,320	0	0	0	100%
【경상이전비】	385,800,000	486,046,080	871,846,080	0	871,846,080	871,772,900	0	0	73,180	100%
보 상 금	378,800,000	470,745,340	849,545,340	0	849,545,340	849,472,160	0	0	73,180	100%
퇴 직 충 당 금	7,000,000	15,300,740	22,300,740	0	22,300,740	22,300,740	0	0	0	100%
【자본적지출경비】	1,570,000,000	3,059,594,530	4,629,594,530	2,365,899,060	6,995,493,590	4,402,949,790	2,576,684,350	0	15,859,450	100%
시 설 비	1,420,000,000	2,717,173,000	4,137,173,000	2,220,733,950	6,357,906,950	3,765,429,790	2,576,684,350	0	15,792,810	100%
시 설 부 대 비	150,000,000	-150,000,000	0	0	0	0	0	0	0	0%
자 산 취 득 비	0	492,421,530	492,421,530	145,165,110	637,586,640	637,520,000	0	0	66,640	100%

사 설

사라캠퍼스 교내 식당,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학생 복지 차원에서 사라캠퍼스의 교내 식당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이 통합된 지 5년이 지났다. 교육과학연구·초등교육연구소에서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의 자료집(2011. 12. 13.), 통합 이행 각서 추진 현황 1차 자료(기획평가과-1111(2013.4.15.))에 따르면, 통합 이후 두 캠퍼스가 학사, 행정 등 여러 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통합 후에도 사라캠퍼스의 교내 식당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사라캠퍼스 교내 식당에 대한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불만이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4학년 학생들이 구내 식장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얻는 이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내식당 대신 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우당도서관 식당을 이용한다. 다른 하나는, 생활분관 학생들의 불만이다. 생활분관에서 생활하는 과반수 내외의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식단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학생은 지난 6개월 동안 스마트폰으로 식단 메뉴를 찍어두었다고 한다. 그들 불만의 정도가 짐작된다.

교내 식당의 만족도가 학생들의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식당 이용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악순환은 교내 식당 이용자 수가 감소하여 식당 영업주가 식단을 조정하고 조정된 식단은 다시 이용자 수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우선,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대학 관계자, 식당 영업주, 학생, 교수, 직원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서로의 불만 사항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 때 대학 관계자는 교내 식당의 장·단기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학생, 교수,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식당 이용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협동조합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당 영업주는 식단 개선을 통해 식당 이용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 영업주는 사라캠퍼스의 식당 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소 있더라도 다른 후생 복지 시설(매점, 복사실, 자판기 등)이 식당과 연계되어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아침과 저녁 식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학생, 교수, 직원은 교내 식당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 각자 교내 식당에 대한 불만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이용 빈도를 늘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라캠퍼스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할 때, 통합 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형인 사라캠퍼스의 교내 식당 문제는 조금씩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경조사비 쓰려고 교수회비 징수하나?"

11일 교수회 총회서 불만 제기돼… 의견 수렴키로
대학 내 식당 운영개선 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 확정

교수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11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교수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11일 오후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교수회 임원 소개, 2012년도 감사보고,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총장임용후보자선정제도 관련 진행상황 경과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수회 정기총회에서는 교수회비와 관련해 언쟁이 붙었다. 교수회비가 경조사비나 퇴직교수 선물 등으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수회비는 제4대 양길현 전 교수회장부터 징수하기 시작했다. 교수회가 교수 권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기에 교수들이 직접 돈을 낸다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하지만 그 의도와 달리 경조사비 등으로 쓰이고 있어 교수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한 교수는 "교수회비가 경조사비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몰랐다"며 "교수회가 학교 예산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굳이 징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불만이 고조되자 송석언 교수회장은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학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도 감사보고는 회계감사보고서, 교수회 결산보고, 교수회비 결산보고, 교수회 정책과제 연구개발 내용을 다뤘다.

교수회 결산보고에서 2012년 교수회 세출은 교수회 일반운영경비 1016만310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 여비 423만9540원만원, 교수회 업무추진비 1918만1460원, 교수회 연구개발비 3098만원 자산취득비 1158만7070원 등 총 8114만8380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세입은 8112만원으로 2만8380원의 적자를 냈지만 회계감사보고서에서 기획평가과에서 2만8380원의 적자를 보전해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

교수회비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767만432원이 수입과 485만8000원의 지출이 있었다고 보고 했지만 소계 부분이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다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교수회 2013년도 사업계획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학장 공모제 운영에 대한 분석, 학사운영(수업)에 대한 분석, 대학 운영에 대한 분석, 대학 교내식당 개선방안, 교수회 홈페이지 활성화를 내걸었다. 올해 교수회 예산은 8484만원이며 교수회 일반운영경비 120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 여비 729만원, 교수회 업무추진비 2021만원, 교수회 연구개발비 2680만원, 자산취득비 360만원, 2013년도 여교수협의회 예산 1188만원으로 예산안을 구성했다.

또 총장임용후보자선정제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현재 총장임용후보자선정제도 개선 추진위원회 회의를 7차례, 소위원회 회의도 3차례 진행한 사실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

조릿대사업단 최우수 2단계 사업단에 선정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평가서
"제주 산업 동반 성장 이끌 것"

제주조릿대RIS사업단(단장 김세재)이 2013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단계 평가에서 전국 26개 사업단과의 상대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얻으면서 2단계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1단계사업보다 45%이상 증액된 국비 22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사업단은 지난 3년간 1단계 사업을 통해 제주조릿대가 건강·뷰티 소재로서의 우수한 기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제주 특화 산업소재 브랜드로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주조릿대RIS사업단은 도내에 조릿대를 가공하는 기업수가 13배 이상 증가했고 약 2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수제차에 한정됐던 제품을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수산식품, 건축자재, 주류 등으로 다변화시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제주조릿대 RIS사업단 김세재 단장은 "2단계사업을 통해 조릿대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1·2·3차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단은 제주조릿대 공동브랜드 '헬스셋(HealthSet) 개발을 통해 조릿대 가공기업의 마케팅과 매출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 선정 2012년 지역산업지원사업 우수사례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생활과학교실 운영

제주대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센터장 정승달)가 한국과학창의재단, 제주시, 서귀포시와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읍면동 도서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2013 제2기 재미있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에임즈룸', '탄성자동차', '드래곤 커브', '숨은 색깔찾기', '진동 바람개비', '내 손안에 토네이도, 무슨 색으로 변할까?', '너는 이가 몇 개니?', '치카치카' 등 각 분야별로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실험·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는 재미있는 생활과학교실 이외에도 과학앰배서더 등의 행사를 열고 있다. 문의=과기센터(전화 754-3564)

국문학보 제19집 발간

국어국문학과에서 2012학년도의 학술·문예 활동을 종합 정리한 『국문학보』 제19집을 간행했다.

이 책에는 2012년 6월 2박 3일 동안 제주시 도련1동에서 실시한 학술조사에서 얻은 신앙·민요·설화·방언 등의 자료를 비롯해서 '제주설화의 스토리텔링 연구' 등 학생논문 2편, 정지형의 '벚꽃' 등 시 6편, 박여주의 단편소설 '그곳에 있었다', 학생회활동 연보 등을 수록했다.

'찾아가는 도서관'
도서관 이용방법 안내
오는 3일까지 단과대 순회

중앙도서관(관장 한석지)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3일까지 10개 단과대학을 돌면서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이 반납, 대출,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이용방법 안내 등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전반적으로 궁금했던 상황을 직원들이 알려주고 해결해 주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공과대학 4호관, 수의과대학 로비, 미술관 로비에서 열린다.

'찾아가는 도서관'에서 도서관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할 점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명희(중앙도서관) 전자정보팀장은 "'찾아가는 도서관' 등 학기초부터 직접 이용자들을 만나 중앙도서관 활용방법을 알리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중앙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학기에도 이용자들과 책을 읽는 프로그램 등의 진행을 구상 중이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사람들

이상이(의학과) 교수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

이상이(의학과) 교수가 동아일보가 기획한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됐다. 이상이 교수는 '행동하는 지성인' 분야에서 선정됐다.

이 교수는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복지국가 담론과 정책을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복지국가 운동'을 이끌고 있다.

황용철(경영학과) 교수
한국경영학회 부회장에 위촉

황용철(경영학과) 교수가 한국경영학회 부회장으로 위촉됐다.

한국경영학회는 경영학 연구와 교육을 위해 1956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이혜선 교수·임은숙 박사
우수논문상 수상

이혜선 교수와 임은숙(의류학과) 박사가 부산대에서 열린 '제48차 한국염색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동 발표한 논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돼 천연염색상을 수상했다. 논문 제목은 '제주송이(Scoria)를 이용한 견직물의 혼합염색'이다.

김동욱(회계학과) 교수
인명사전 '마르퀴즈'에 등재

김동욱(회계학과) 교수가 저명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 2013년 30주년 특별호에 등재됐다.

"제주어 교육 강화 위해 교과과정에 포함을"

소멸위기의 제주어 보전 방안 등 제시
'제주문화와 120만 제주인의 사회통합' 대토론회

강영봉 교수

탐라문화연구소(소장 김석준)와 재외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장(총연합회장 양원찬)은 지난달 25일 국제교류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주문화와 120만 제주인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양원찬 총연합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김동전(사학과 교수) 박물관장이 사회를 맡아 강영봉(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문화원장이 '제주사회 통합과 제주어'를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순이 제주문인협회장, 박경훈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 이창익(일어일문학과 교수) 재일제주인센터장, 현길언 소설가가 참여했다.

제2부에서는 고호성(법학과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사회를 맡아 '시민적 제주인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김은석(초등교육과 교수)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이 발표하고, 강승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김태일 건축학부 교수, 홍현종 음반기획자, 허남춘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다음은 강영봉 교수의 발표 요지.

제주사회 통합과 제주어-강영봉 국어문화원장

제주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강화하고, 부정적인 태도는 약화시키는 방안, 세대 간의 차이를 줄여 결속력을 다지는 길이 곧 언어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이 될 것이다. 우선 방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표준어가 인위적인 언어, 엄격성의 언어라고 한다면 방언은 살아 있는 언어, 친근성이 있는 언어다.

유네스코는 2010년 12월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하며, 시급하게 해야 할 일 네 가지를 제시했다. 즉 제주어 보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 외국의 보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수집할 것, 제주어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되게 할 것 등이 그것이다. 정책 수립은 2007년 제정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로 충분하며, 문제는 그 실천에 있다. 외국어 보전 사례 수집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전문가들 나름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역점에 둬야 할 것은 '제주어 교육 강화'와 '실생활에서 쓰이는 언어가 되게 노력하는 일'이다. 제주어 교육 강화는 일차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교과 과정화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꽉 짜인 틀 속에서 제주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노력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언어의 완성은 13살 전후라는게 학계의 정설이다. 제주어 완성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교과과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제주어교육자료'를 교재로 활용하며 하교할 때 경로당의 어른들과 대화하는 것도 제주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를 실생활에서 쓰이는 언어가 되게 노력하는 일'은 자주 즐겨 쓰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다. 제주어가 어른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주장을 제주어로 말하게 함으로써,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일상으로 쓰는 언어로 자리바꿈할 때 제주사회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나아가 제주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언어에는 정신활동에 영향을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생산해 내는 일이 가능하고, 나아가 언어 공동체의 견고성을 확보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하게 된다. 제주어를 살아있는 언어로 만든다면 제주사회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제주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제주어로 말하고, 제주어로 글을 쓰고, 제주어로 생각하고, 제주어로 꿈을 꾸게 하려면 제주어를 자주 즐겨 쓰는 방법 밖에는 없다. '프랑스인은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프랑스인 스스로의 자부심에 빗대어 '제주 사람을 제주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 세상을 꿈꾼다.

"경제대국 허울에 갇힌 우리의 야만성 고백해야"

법전원 주최 '인권론의 새로운 과제' 특강
불법체류자·병역거부자 등 소수자 인권 존중 강조

조국 교수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5일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인권론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강연 요지.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상황을 통해 알아보자. 불법체류자로 머무는 외국인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이다. 따라서 그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붙잡히면 추방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해서 불법을 행한 이들에겐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리고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권은 권리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처럼 인권은 특정 국가나 실정법에 관계없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실정법상의 권리와는 별개로 보장돼야 한다. 앞의 예처럼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행위는 불법이고 그들은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다. 그러나 그들이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인권으로서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한다.

요한 갈퉁이라는 노르웨이 사회학자는 청색, 적색, 녹색, 갈색 네 가지 색으로 인권을 설명했다. 그는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을 청색인권 △노동자, 농민, 무산계급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 등을 적색인권 △여성, 아동, 소수자, 이주자 등의 권리, 환경권, 평화권 등을 녹색인권 △비서구권, 제3세계 자기결정권, 문화상대주의 등 갈색인권 등으로 분류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문제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사회의 경제양극화는 점점 더 시민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다. 얼마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젊은 작가의 편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적이 있었다. 점점 갈수록 양극화되는 사회 때문에 전도유망한 젊은 작가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등진 것이다. 최고은 작가는 촉망받던 젊은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다. 최고은 작가의 마지막 글은 셋방 주인에게 보낸 쪽지였다. 편지에는 '방세를 빨리 내지 못해 죄송하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드리겠다, 먹을 반찬을 줬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06년 한국인과 결혼한 19살의 베트남 신부 후안마이는 신혼생활 2개월 만에 지하 셋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이 그녀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고등법원의 김상준 부장판사는 범인인 남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 이런 글을 적었다.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도 심각하다. 2005년 8명의 태국 출신 노동자가 노말 헥산(n-Hexan)이라는 독성물질 중독으로 하반신 불수가 됐다.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지급하는 마스크, 장갑 등의 기본적 보호 장구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일은 후에 태국 언론에 보도되며 태국 사회가 분노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장애인, 혼혈인 등도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멸시받으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다수에 속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켜져야 하고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가 인권이다. 김명지 기자

교수시론

금의야행(錦衣夜行)의 품격(品格)

김 치 완
철학과 교수

오늘날 대학이 성과에만 매달리는 이유는 넋을 빼놓고 있어서다. 앞으로 대학이 나아갈 길이란 분명한 힘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사회구성원의 수준을 끌어올리며 각자 최고수준에 이르게 하는데 있다.

'금의야행(錦衣夜行)'은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라는 뜻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비단 옷을 입었으니 남이 알아줄 리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잘 해도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헛수고, 허세를 가리킨다. 물론 아무 보람이 없는 행동을 자랑스럽게 하는 못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지만 안데르센의 단편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에 비하면 금의야행은 나름 품격이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갖추어 입은 것을 보지 못하는 남의 잘못이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벌거벗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향우(項羽)도 결국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었다. 그래서 진나라를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옥한 관중(關中)을 버리고, 결국은 제후들과 천하(天下)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항우를 속인 것은 '힘으로는 산을 뽑아내고 기운으로는 세상을 덮을 만하다(力拔山氣蓋世)'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어디 그 뿐이랴! 벌거숭이 임금님인 항우에게 가장 멋지게 속아 넘어간 이도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관중을 도읍으로 삼으라는 진언(進言)에 "부귀한 뒤에 고향에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누가 그것을 알아주리오?"라고 대답한 사람이 바로 항우 자신이기 때문이다.

사마천은 이 일을 두고 "자신의 공을 뽐내고 자신의 사사로운 지혜만을 앞세우며, 옛 가르침을 스승 삼지 않고 힘으로만 경영하려고 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한 세력기반, 곧 '집토끼'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이르러 함께 나누고 연합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항우는 제후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제후를 버렸고, 결과적으로 자신과 천하를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초나라를 그리워해서 관중을 버린 것(背關懷楚)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을 버린 것이다.

노자는 '넋을 빼 놓고 있지 말라(載營魄抱一)'고 말한 일이 있다. 넋을 빼 놓고 있는 사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늘 불안할뿐더러, 제 눈마저도 의심한다. 그런데 본디 도무지 어찌할 요량을 내지 못하는 위인이다 보니 그렇게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게 살아 있다는 증거라고 자신을 멋지게 속인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이렇게 자신을 속여서 확신범(確信犯)이 되고나면 대개는 주제넘게도 순교자가 되기로 마음먹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봤자 그 위인의 심장 박동이 약간 빨라진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최대의 반전인 셈이다.

노자는 우리에게 금의야행의 품격을 일러준다. 첫째, 넋 놓고 있지 마라. 둘째, 갓난아이처럼 온 몸에 힘을 빼라. 셋째, 지레 겁을 집어 먹고 헛것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넷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선 한 걸음 내딛어라. 다섯째, 한 걸음이 전부는 아니므로 늘 조심하라. 여섯째, 몇 걸음 떼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노자가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걸어왔다. 노자는 그렇게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지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그 첫 걸음이 지금까지 우리를 걷게 하는 그 그윽한 힘(玄德)이라고 응원해주는 것이다.

금의야행의 품격은 '봐주는 그 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늘날 대학이 인적자원의 중요성과 구성원의 심리적 가치를 외면하고 성과에만 매달리게 되는 이유는 넋을 빼놓고 있어서다. 모름지기 대학이 나아갈 길이란 "분명한 힘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사회 구성원의 수준을 끌어올리며, 각자가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데(在明明德 在新民在止於至善)" 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더욱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제주대학교가 금의야행의 품격을 제대로 갖춘 구성원들로 그득하면 좋겠다.

돌하르방

교육부는 국립대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야

김 동 현 여론사회부장

정부조직법이 늦게 통과가 되면서 대학 행정이 전반적으로 미뤄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업무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로 인해 한동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정책 혼란 등으로 인해 사업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은 사업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4월 13일에 선정했지만 올해는 사업 공고도 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ACE 사업, RINK 사업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사업들이 늦어지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비는 대부분의 액수를 재학생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역량강화사업비로 26억원을 지원받았고, 이를 취업캠프, 교류수학, 인턴십 등을 진행하는데 활용했다.

올해는 사업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얼마나 받을지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해에 받은 교육역량강화사업비는 올해 1학기면 다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다 보니 하기 방학이나 2학기에 진행할 프로그램을 축소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이 늦게 통과되면서 기획평가과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획평가과는 주요 국책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대학과 관련된 국책사업을 정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으로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대학 지원 확대 등을 대학정책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 공약들을 담당할 부서인 교육부의 개편이 늦어지면서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또한 기획평가과 외에도 산학협력단, 입학관리과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은 산·학협력단과,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는 입학관리과와 관련이 있다.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대학에 지장을 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일을 진행했었다. 그에 비해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경쟁력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국립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건 사업을 진행하거나 제시한 방향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시를 하지 않으면 대학이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조직법과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다.

기자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찬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립대학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으면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예정된 사업만큼은 공고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국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다. 정부조직법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 공고를 내지 않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교육부는 하루라도 빨리 국립대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동문칼럼

인생은 도전하는 삶 그 자체다

김 경 호
현대백화점 상무
사회학과 79학번

요즘의 대학생들, 그 젊음의 시기를 낭만을 느끼면서 마음껏 즐기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한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21세기의 대학생활은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는 그런 한가한 시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준비하고 도전을 위한 시기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최근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살펴보면 취업준비생들은 인재선발 기준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이력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화려하다. 하지만 기업에서 환영받는 신입사원에 대한 유형을 한 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자마다 각 기업마다 개인을 바라다보면서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같이 화려한 스펙으로 포장 된 대학생들이 과연 입사 후에 자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면접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언어구사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지만 그 역시도 이미 준비된 답변이라는 것이 곧바로 드러난다. 창의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평소에 준비하는 자만이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의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되며 지금 이 순간에 준비하는 것들은 바로 자신의 능력이고 실력이라면, 바로 자기 자신의 운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으로서의 열정과 패기만은 절대 잃어선 안 된다. 진정한 젊음은 어려워진 환경이나 시대를 절대로 탓하지 않는다. 더구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젊음이 있기에 자신에게 처한 난관이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어려운 위기를 도전의 기회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뜨거운 정열 또한 젊은 청춘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장점이라고 믿어야 한다. 어차피 인생은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드라마 연출자의 심정으로 남과는 분명히 다른 인생스토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기획하고 치밀하게 성공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결국 면접관들은 취업준비생의 인생스토리에 특히 주목한다는 점은 절대로 잊지 말자. 그래서 말하고자 한다. 「90대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열정이 있다면 젊은 청춘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20대 청춘이면서도 열정이 없다면 그는 이미 노인이다.」 후배들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위기는 항상 반복된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 했었지만 우리 역사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례는 없다. 결국 지금의 위기상황은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힘든 상황에서는 바로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하면서 과감하게 행동하면서 도전하는 자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은 역사에서 배우는 하나의 진리인 것이다. 그렇다. 앞에서 언급 한 샤클턴의 위기 극복 사례를 통해 필자가 강조하고자 함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당면한 위기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스스로가 자기인생을 책임지는 리더라는 생각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행동책'을 제시하여 셀프 리더로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것은 주어진 인생을 책임 있게 사는 사람으로서의 풀어 나가야 할 도전 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마치 삼각파도처럼 다가오는 심각한 불황으로 인해 위기가 왔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새로운 성장기회가 자신에게 왔다는 것을 먼저 눈치를 채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시 힘차게 닻을 올려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그렇다. "도전하지 않는 삶, 그것은 인생이 아니다."

독자기고

나라간 문화 차이 수용하고 이해해야

김지현(해양의생명과학부 2)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 빌 게이츠가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는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앞으로의 한국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날 자리에는 많은 국내 기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신들이 그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의 사진을 찍고 그가 하는 이야기마다 집중했다.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다른 기자들과 경쟁하며 마이크를 뻗었다. 그 다음날 빌게이츠는 사진 한 장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악수하는 자세가 논란이었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를 만나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악수를 건넨 것이 화근이였다. 이 사진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 같은 행동을 예의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 나라를 방문하기 전, 그 나라의 예절에 대해 알고 방문하는 것이 그 나라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서양적인 인사법일뿐 아무런 실례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빌게이츠는 그동안 여러 국가원수들을 만날 때마다 왼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악수를 건넸다. 2008년 5월 한국 방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또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프랑수와 올랑드 현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사진속의 게이츠는 왼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이에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넬 때 급에 따라 다른 자세를 취해 인사를 건넸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전 사례를 보면 빌게이츠의 행동은 차별이 아닌 나라간의 문화차이이다. 서양과 동양사이에 인사법에 차이가 있어 다른 방법으로 인사를 건넬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01년 故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넬 때 두 손으로 악수를 한 것이다. 이 전 외국원수를 만날 때의 빌게이츠의 모습을 접하지 못한 네티즌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빌게이츠가 나쁜 의도 없이 때에 맞게 편한 자세로 인사를 건넨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그 나라의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미리 주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예절에 민감한 한국의 경우는 특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점차 나라간의 거리가 줄어들고 쉽게 외부문화를 접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접 방문해서 생생한 경험을 하고, 이를 즐기게 된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해 배우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말로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며 이야기하지만 막상 외국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이해하는 태도를 볼 수 없다. 이번 사례에서도 외국사람인 빌게이츠의 인사법을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려는 노력없이 무작정 비난하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하는 것이 예절이지만, 서양은 악수를 건네면서 눈을 바라보는 것이 정중한 인사이다.

빌게이츠는 최선을 다해 박근혜 대통령을 마주했고, 박 대통령은 악수 논란과는 상관없이 청와대를 방문한 게이츠에 대해 "창의성과 사회적 책임을 겸비하신 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직접 인사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빌게이츠를 평하는데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왈가왈부할 화제가 아니다. 서양과 동양에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른 점이 많다. 이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4·3의 희생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 영 석
언론홍보학과 3

추위가 서서히 풀리고,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인 4월. 평화롭지만 우리에겐 잊을 수 없는, 아니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다.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4·3 사건.

나는 대학생이 되고나서부터 4·3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시절 4·3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참 후회스럽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2013년 3월 28일 우리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4·3사건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4·3의 흔적이 있는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이 곳, 저 곳 돌아다니다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4·3은 아주 작은 일부분의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이드를 맡으신 분에 이야기를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됐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 간 곳은 곤을동이라는 곳인데, 곤을동 마을은 1949년 1월 4일 불시에 들이닥친 토벌대에 의해 가옥이 전소되고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는 비극을 겪은 곳이라고 들었다. 막상 가서보니 수많은 돌담들과 집터였던 곳은 유채꽃들로 무성했다. 옛 피해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운 곳이 4·3사건이 피해를 받은 마을이라고 생각하니 실감이 나질 않았다. 텅 빈 집터 안에 있는 바람에 살랑이는 샛노란 유채꽃들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듯 보였다.

다음으로 간 곳은 북촌에 있는 너븐숭이 애기무덤을 갔는데, 북촌 너븐숭이는 대학살 사건 당시 인명 희생이 많았던 곳이다. 아이들의 돌무덤 몇 기가 당시 매장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발포사건의 진상보고서를 보고 화가 치밀었고, 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다.

또 그곳에는 순이삼촌 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현기영 작가님이 정말 멋진 분이란걸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아무도 말 못하던 시절, 침묵의 금기를 깨고 논의의 한복판으로 끌어낸 현기영 작가가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향한 곳은 낙선동성이었는데 당시 쌓은 성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성담을 보자마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이 성담을 쌓으려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과 부녀자들이 투입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또 가슴이 아파왔다. 낙선동성 성담위로 담쟁이가 아픈 역사를 위로하듯 무성하게 덮여있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4·3 평화공원이었는데, 그 곳에서 4·3 사건의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다. 정말 기도하는 내내 울화가 치밀기도 했지만, 무고하게 희생당한 희생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올렸다. 위령제를 마치고 비석 있는 곳으로 가서 꽃을 끼워 주었는데, 끼워주면서 너븐숭이에서 본 비석이 생각났다.

'평화와 상생의 꽃으로 피어나소서.' 정말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분들에 죽음이 헛되지 않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4·3 탐방을 통해 4·3의 대해서 모르고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값진 것들을 얻고 돌아 온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였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학내 행사로 인한 휴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모가 큰 행사들은 휴강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규모 단위의 행사 때문에 휴강이 돼서는 안 된다. 등록금을 내서 받는 수업인데 휴강이 잦아지게 되면 학생들만 손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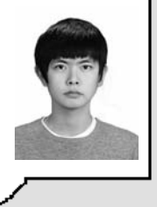
현승효(수산생명의학전공 2학년)

행사 때문에 휴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동아리나 학과 활동을 잘하지 않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수업료가 아깝다는 생각도 든다.

라희수(환경공학과 1)

행사 때문에 휴강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등록금이 아쉽기는 하지만 행사도 대학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보강기간을 활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박재명(사학과 1)



자주만 하지 않는다면 행사로 인한 휴강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대신 보강을 제대로 해줘야 할 것이다.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휴강은 필요하다.

고동현(행정학과 3)

정리=김동현 기자

» 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 – 오키나와를 가다 <3> 카카즈고지·(구)해군사령부

토치카·동굴·방공호 등 전쟁의 참상 고발

전적지 보존 통해 고난의 역사 현장 한눈에

젊은 세대에 평화의 중요성 일깨워

구 해군사령부는 450m에 달하는 굴을 곡괭이로만 팠다. 구 해군사령부 내부에는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회의실, 작전실 등이 있다.

카카즈 고지(코타이) 공원은 오키나와 기노완 시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오키나와 전쟁에서 일본군이 방어를 하던 장소였다. 그러다보니 이곳에는 오키나와 전쟁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일본군이 지은 토치카(두꺼운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것으로 공고하게 구축된 구축물)와 동굴 등을 볼 수 있다.

오키나와 전쟁 초기에 일본군과 미군은 가가쓰 고지에서 대규모의 전투를 벌였다. 일본군은 가가쓰 고지가 주변의 시야가 모두 보이고 근처에는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건물들이 즐비해 있어 최적의 수비 장소로 판단했다. 일본에게는 이 고지를 뺏긴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한다면 오키나와는 물론이고 태평양 전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카카즈 고지에서 대규모 전투가 일어났다.

카카즈 고지에서 일어난 첫 전투는 일본군이 압승을 거뒀다.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전투용품, 식량 등을 미리 대비를 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군은 공군력을 투입해 이곳을 빼앗았다. 카카즈 고지에 있는 토치카에는 구멍이 폭격의 증표다. 그 구멍은 폭격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려준다.

현재 카카즈 고지는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공원에는 토치카 등 전쟁의 흔적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이와 함께 전망대, 추념비 등도 세워져 있다. 전망대에서는 후텐마 기지를 바라볼 수 있다. 또 약간만 시선을 돌리면 밀집된 주택가가 보인다.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기지와 근접하게 사는 것을 알 수 있다.

추념비도 많다. 이 중에서도 특이한 점은 오키나와 전쟁에 돌아간 한국인을 위령하는 '청구의 탑'(靑丘之塔)이 있다는 것이다. 청구의 탑은 1971년 일본민주동지회에서 만들었다. 청구의 탑을 만들기 위해 일본민주동지회는 일본 우익세력에게서 대부분 모금을 받았다. 청구의 탑의 내용에도 한국인 전사자를 애도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전사자를 전쟁 영웅으로 미화시켰다.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전쟁의 계속 미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카카즈 고지 공원에서 바라본 오키나와는 오키나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였다. 앞에는 후텐마 기지가 있고 옆에는 주택가가 있으며 뒤편에는 나하 공항과 바다가 보였다. 오키나와의 기지, 주민, 관광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다. 주택가와 기지를 한 눈에 보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이 매일 기지에서 나오는 굉음을 듣는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지 생각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더 느낄 수 있게 해줬다. 평화라는 것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적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하다. 카카즈 고지 공원처럼 추모비를 만들면 전쟁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전쟁의 아픔을 더 상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해군사령부는 도미구스쿠 시에 위치한 방공호다. 오키나와 전쟁에서 일본 해군을 총 지휘하던 장소였다. 깊이는 약 20m이며 방공호의 넓이는 총 450m이다. 현재는 275m만 개방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곳에서 일본군 4000여 명이 자살했다. 지금도 구 해군사령부에는 자살을 하기 위해 쓴 수류탄의 자국히 남아있다. 현재 개방된 275m는 시신의 발굴이 끝났지만 개방하지 않은 구역에서 계속 시신이 발굴되고 있다고 한다.

구 해군사령부 앞에는 기념품점이 있다. 이 건물에는 그 당시 사진이나 그림, 총, 총탄 등의 전쟁물품, 병, 손전등같은 일반용품들을 전시했다. 사진은 전쟁에 다친 아이들,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미군 등의 내용을 표현돼 있다. 구 해군사령부를 들어가는 입구에는 습기가 가득했다. 안으로 들어가면 회의실, 작전실 등이 있고 그 당시 생활상을 표현한 사진이나 그림이 전시돼 있다. 그 중에는 곡괭이와 땅을 파고 있는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은 450m에 달하는 길이를 곡괭이로만 팠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해군사령부는 징병된 오키나와 주민들이 대부분 팠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간부들이 직접 굴을 팠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을 국민이 아니라 노예로 봤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굴을 일일이 곡괭이로 판 것보다 더 경악할 만한 것은 전쟁 말기에 4000여 명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다. 보통의 군대라면 전쟁에서 불리해지면 항복을 해야 하는데 일본군은 항복 대신 자결을 요구했다. 일본의 할복 문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4000여 명 중에서는 징용된 군인들도 많았다는 점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처사다. 군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일본군은 오키나와 전쟁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했다. 이러다 보니 일본군에게 오키나와 주민들은 자신의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에 대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구 해군사령부에서 일어난 행태를 봤을 때 일본은 전쟁에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전쟁을 통해 자신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물 안 개구리와 같다.

이 두 장소는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 곳에서 발견된 전쟁무기를 보면 미군을 상대할 수 있던 무기가 아니었다. 단지 징병된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전쟁을 진행했을 뿐이다. 그 당시 일본군은 한 나라를 지키는 수호대가 아니라 침략범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일본은 그 사실을 숨기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 정부가 만든 장소는 오키나와에서 자결한 사람들을 치하하는 내용도 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일본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와중에서도 오키나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기 위해 전적지들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대단하게 여겨진다.

김동현 기자

카카즈 코타이 공원에 설치된 전망대에서는 후텐마 기지를 바라볼 수 있다(왼쪽). 카카즈 코타이 공원에는 오키나와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을 위해 '청구의 탑'라는 위령탑이 설치돼 있다.

» 현대사의 비극, 오키나와 전투

오키나와 태평양전쟁 최대의 격전지

주민 12만명 사망·집단자결 강요도

미군은 오키나와 상륙 당일인 1945년 4월1일 오전 주력 4개 사단이 가네다만에 순조롭게 상륙했다.

오키나와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최대 규모의 전투였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83일간 치러진 오키나와섬에서 벌어진 전투는 양측의 피해도 크지만, 오키나와인 12만명이 무참하게 살해되거나 자결을 강요받은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다. 오키나와 주민 사망자 중에는 특히 전투에 휘말려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군에 의해 집단자결로 내몰려 죽은 경우와 스파이 혐의로 살해된 경우, 피난했던 참호에서 군대가 쫓아내 죽은 경우가 많았다.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승전보를 기점으로 일본 본토 진격 작전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오키나와 상륙작전을 개시한다. 사이먼 버그너 중장의 지휘 아래 남북 120㎞에 불과한 오키나와 본도를 18만3000명의 대규모 병력과 전함 1500여 척을 동원해 공격했다. 상륙지점인 가네다만 주변에는 미리 3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어 일본군의 저항을 무력화시켰다. 오키나와의 일본군은 현지 징집인원까지 합쳐 11만명이었다. 작은 섬에서 석 달이나 전투가 계속된 것은 일본 군부가 미군의 전력 약화와 본토 진격을 늦추기 위해 '결사항전'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시지마 미쓰루 중장을 사령관으로 한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1945년 4월 1일 미군상륙 이후 나흘간 소강상태를 보이던 전투는 4월5일부터 일본군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는 슈리성의 동굴진지로부터 미군을 향해 총탄이 불을 뿜으며 치열한 교전상태에 돌입했다. 미군은 무수한 동굴참호를 수류탄과 화염방사기로 제압했고, 일본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양측에서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처참한 백병전 끝에 미군은 5월 29일 슈리성을 함락시켰고, 일본군 지휘부는 섬 남쪽으로 퇴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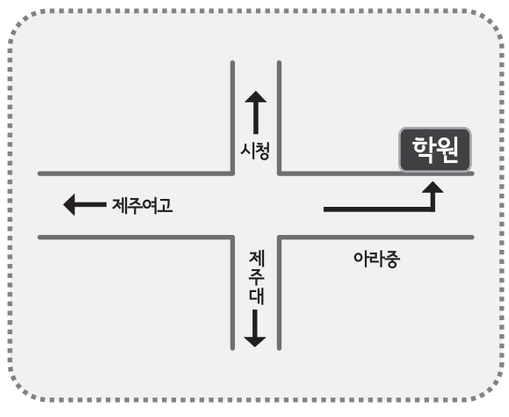
6월 12일 오로쿠 반도에서 일본 해군 지휘관 오오타 미노루와 그의 군대 전원과, 6월 15일 남은 병력 6000여명이 미군의 화력에 괴멸됐다. 마침내 6월 23일 우시지마 중장과 쵸 이사무 소장이 할복자살하면서 전투는 끝났다. 미군은 오키나와 상륙 직후부터 요미탄과 가데나 기지를 점령해 단기간에 확장·정비하고, 남부 전선의 군사작전, 일본 본토 폭격, 군수물자의 수송 등을 위한 군사기지로 사용했다. 오키나와는 현재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후방 보급기지 구실을 하고 있다.

석 달간의 전투과정에서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도 자결을 명해 주민들은 일본군이 건넨 수류탄으로 자결하거나, 가족끼리 서로 목졸라 죽이는 참극이 발생했다. 일본군은 미군에 협조하는 오키나와 사람을 찾아낸다는 구실로 '스파이 사냥'을 벌이며 주민을 살해하고, 서로를 불신과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일본군에 의해 스파이로 몰려 살해당하면서 근대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비극이 연출됐다. 이 전투에서 숨진 오키나와 출신 병사 및 주민은 12만명으로 본토 출신 일본군 사망자(6만명)의 두 배에 이른다.

본래 류큐제도는 19세기 후반에 일본에 복속되기 전까지는 일본과 중국 간에 균형외교를 펼쳐온 자치국이었다. 편입 이후에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간직해왔다. 그런 이곳 주민들에게 오키나와 전투는 일본 본토에 대한 저항감을 갖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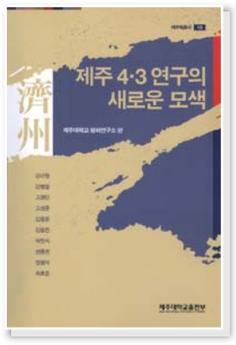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주학총서 13
제주 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 330페이지 | 15,000원 |

이 책은 4·3 학술연구를 새롭게 모색해 보고자 하는 필자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총 4부로 아홉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 논문들은 4·3을 필자들의 전문 영역으로 끌어들여 연구 현황과 그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과제의 제시, 그리고 비교적 새로운 관점으로 4·3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들이다. 따라서 이 책은 책의 제목처럼 「제주 4·3 연구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디딤돌 또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 서문 중에서 –

제주대학교 출판부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 064)754-2275 팩스 064)702-0549 http://press.jejunu.ac.kr

청춘 20대, 꿈을 꿔라
제주대신문 61기 수습기자 모집
"청춘을 가장 멋있게 불사르는 방법"

제주대신문 입사혜택
–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장학금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 원고료(기사 성과에 따라), 취재 수수료(매월) 지급
– 현직 기자들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 실제 언론사에서 활용하는 편집 시스템을 통한 편집교육
– 언론사 취업 적극 알선
–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일본, 중국, 필리핀, 미국, 라오스, 몽골 등)

모집대상 :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13학번 학생
원서마감 : 5월 10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방법 : 제주대미디어(news.jejunu.ac.kr) 자유게시판에서
제주대신문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출력 후 작성
편집국에 방문해 직접 제출
기타서류 : 입사지원서와 함께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성격, 입사지원 동기 등 기술) 1부 제출
장 소 : 대학원동 3층 언론미디어센터 내 제주대신문
문 의 : 제주대신문 편집국(754-2277~9)